



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보험 시장 현황 분석

최 원 선임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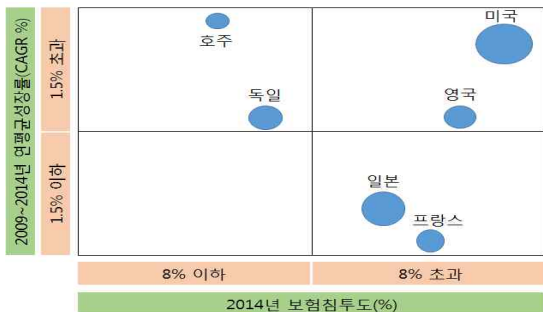
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 보험시장을 조사¹⁾한 결과, 미국과 영국 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보험침투도²⁾를 나타냄.

- 미국과 영국 보험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입보험료 성장세를 빠르게 회복하였으며, 이는 고령화로 노후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저축성보험과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임.
- 또한, 자동차보험, 제3자 배상책임보험,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무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손해보험 시장과 건강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.

■ 신흥국 보험시장의 경우 중국, 브라질,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보험료 증가율과 보험침투도를 보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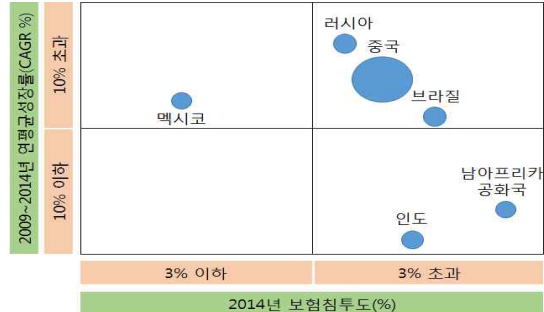
- 중국 보험시장의 경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화, 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, 마이크로인슈어런스(microinsurance) 비중 증가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호한 성장세를 견인함.
- 브라질의 경우 중산층 확대에 따른 보험상품 구매력 상승이 보험시장 확대의 주요한 원인임.
- 러시아 보험시장의 경우 유해시설 관련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상해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확대가 수입보험료 성장을 견인함.

〈그림 1〉 주요 선진국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침투도



자료: Timetric.

〈그림 2〉 주요 신흥국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침투도



자료: Timetric.

1) timetric(2015. 4), “Insight report: Insurance Market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” 참조.

2) 보험침투도는 명목GDP 대비 수입보험료 비율이며, 보험산업이 해당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하게 하는 수치임.

■ 선진국 보험시장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맞춤형 연금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보험회사들은 수익성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익률 제고와 비용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.

- 선진국에서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가 높은 만큼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주목을 받았으며, 특히 노후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졌음.
- 저금리로 인해 수익성 개선이 어려운 가운데, 2011년부터 위험 노출 정도가 크더라도 더욱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.
- 증개인과 대리점이 여전히 주요한 판매채널이기는 하나, 위기 이후 비용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온라인, 모바일, 소셜미디어와 같은 비대면 판매채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.

■ 신흥국 보험시장의 경우 보험이해도가 높지 않은 만큼 접근성이 높은 단순한 구조의 보험상품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부각되고 있으며,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음.

- 신흥국에서는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구조의 보험상품과 저소득 계층에서도 가입이 가능한 마이크로인슈어런스와 같은 보험상품이 주목을 받음.
- 대리점이 여전히 주력 판매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, 은행 이용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방카슈랑스 채널의 중요성도 그만큼 확대되고 있음.
-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1부터 2013년까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주식시장 조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신흥국 보험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의 비중을 확대한 바 있음.

■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보험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앞으로도 보험회사에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전망됨.

- 저금리가 계속되고 거시경제 불확실성도 증가하면서 보험회사들은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향후 미국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과 자산운용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.
- 금융위기 이후 보험소비자 보호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, 솔벤시2, IFRS4 Phase2, 금융그룹 감독 등의 규제 변화가 추진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보험회사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.
- 최근 빅데이터(big data) 활용 능력, 텔레매틱스(telematics), 모바일 기기 활용 등과 같은 기술발전과 보험시장을 접목하기 위한 시도는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임.

(timetric 등)